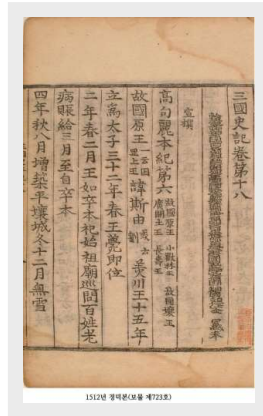


고국원왕[故國原王]

강대한 고구려를 꿈꾸다 전장에서 쓰러진 비운의 왕

미상 ~ 371년(고국원왕 41)



삼국사기 고국원왕 기사

/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

1 개요

고국원왕(故國原王, ?~371)은 고구려 제16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331년~371년이다. 그는 낙랑군(樂浪郡)과 대방군(帶方郡)을 한반도에서 축출한 아버지 미천왕(美川王)의 뒤를 이어 고구려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요동(遼東)과 부여(夫餘) 지역을 둘러싸고 전연(前燕)과 대립하였고, 대방군(帶方郡) 지역을 둘러싸고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과 경쟁했다. 그러나 백제와 평양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전사하여, 그 꿈을 완수할 수 없었다.

2 생애와 가계

고국원왕은 국원왕(國原王) 혹은 국강상왕(國岡上王)이라 불린다. (고)국원이나 국강상은 고구려 전기 수도인 국내성(國內城,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안시) 지역의 구릉을 의미하며, 바로 왕릉이 위치한 곳이다. 고구려는 이렇게 왕릉의 위치를 왕의 시호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왕실 계보상으로 시조 주몽(朱蒙)의 11세손이다. 본명은 사유(斯由)인데, 쇠(釧)라는 기록도 있다. [관련사료](#) 아버지는 선왕인 미천왕(美川王)이고, 어머니는 가계를 알 수 없고 주씨(周氏)라고만 전한다. 314년(미천왕 15) 1월 태자(太子)로 책봉되었다가, 331년 2월 미천왕이 돌아가시자 왕위에 올라 41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자식으로는 그의 뒤를 이어 차례로 즉위한 소수림왕(小獸林王)과 고국양왕(故國壤王)이 있다.

3 전연(前燕)과의 대립과 좌절

고국원왕의 아버지 미천왕대는 중국 진(晉)이 붕괴하고 5호 16국의 혼란기로 접어들던 시점이다. 고구려는 혼란한 국제 정세를 틈타 한반도 안의 중국 군현을 축출하는 한편, 외부로 영토 확장을 꾀하였다. 특히 요동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선비족(鮮卑族) 모용부(慕容部)의 전연(前燕)과 크게 대립하게 된다.